땅의 삶과 기쁨의 과정은 별개다

(이사야 24:1~23)

1.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7.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8.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9.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0.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11.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2.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땅의 삶과 기쁨의 과정은 별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땅의 삶과 기쁨의 과정은 별개다'
이번 여름휴가 기간에 유래 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에는 말씀을 들으시던 분들께서 강릉을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강릉을 벗어나서 많은 목사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시간이 반복되면서 늘어난 실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커피 마시는 실력입니다. 저는 오후 12시가 넘어서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아침에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마셔야만 하는 상황들이 많았기에 커피가 늘었습니다.
한편 커피가 이처럼 맛이 좋고 그 향이 유혹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블랜딩 때문입니다. 블랜딩은 맛이 중성적인 원두를 기본으로 하여, 시거나 쓴 맛의 원두를 두 종류에서 다섯 종류까지 섞습니다. 이러한 커피는 하나의 원두로만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맛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블랜딩은 커피뿐만이 아니라 와인에도 적용합니다. 서로 다른 포도 품종을 혼합해서 와인을 만들면 이상적인 맛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피와는 다르게 이 땅에서 기쁨을 얻는 과정에서 블랜딩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

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기쁨을 얻는 과정은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블랜딩은 너무나 보편적인 것으로써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바로 이렇게 블랜딩 된 삶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기쁨과 만족을 얻는 과정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곧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가톨릭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기쁨에 대해 쓰신 글이 있어서 인용해봅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여정을 두고 보면 기쁨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필요가 먼저 있고, 이것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배고픔의 고통이 있기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먹는 과정에서 기쁨이 함께하고, 심한 마음고생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기쁨이 자리하게 된다. 진정한 기쁨은 기뻐하기 위한 자세로 얻어지거나 인위적인 연극이나 강요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속여서 얻을 수는 더더욱 없다. 어떤 힘든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성취했을 때에 참된 기쁨은 온 몸과 마음에 자리 잡는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할뿐더러 기쁨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칼럼에서 말하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쁨을 얻는 과정과 동일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성취-기쁨이 보편적으로 인류가 기쁨을 얻는 도식입니다. 이것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은 바로 이 기쁨을 얻는 도식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가장 억울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조차도 기쁨을 얻는 과정과 삶을 진행하는 과정이 브랜딩 된 상태로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에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는 공중분해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억울함일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얻는 과정은 이 땅에서 진행되는 삶의 과정과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블랜딩 되어서 혼합된 상태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경우와는 반대로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기쁨의 향기가 나지 못하고 악취가 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기쁨을 얻는 과정과 삶을 사는 과정이 블랜딩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3~23장에서는 이방 열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27장까지는 나라와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임할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과녁으로 삼으시는 대상을 특별히 땅으로 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4절에서 이 땅은 '세계'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으며 '온 세상의 백성'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도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라고 하였고, 19~20절에서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땅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사실 땅은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녁이 된 이유는, 땅에서 진행되는 삶을 기쁨과 만족을 얻는 과정과 혼합시켜버린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땅은 인간사회 전체를 상징합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술 자체라기보다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고, 모든 기쁨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애초에 우리는 기쁨의 정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기쁨의 정의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을 정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한 의식으로써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를 예고하신 후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생애의 목적인 십자가를 처음으로 예고하신 직후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의 정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은 곧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상태가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 예수님이 가득 들어오신 상태가 기쁨입니다. 거꾸로 아들 예수님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 들어와 계신 상태가 또한 기쁨입니다.

즉 '기쁨'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며 예수님을 위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발생하는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원래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기쁨은 생겨납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 차셨을 때에 기쁨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가득 차실 때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래 이 땅은 기쁨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의 기쁨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상대방 안에 하나님이 가득 들어와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형성된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업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들을 삶과 블랜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전죄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를 때에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녀를 잘 길러야만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사업을 하는 장로님에게는 사업을 잘해서 이윤을 남겨야 기쁨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고상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먼 외국에 나가서 그들을 돕고 위하여 사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마귀의 장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일에서조차도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기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가득히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히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마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동일하시기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일체이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전부입니다. 다른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마귀에게 속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과정과 기쁨의 과정을 블랜딩하여 살아갑니다.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삶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편적으로 심판하실 때의 과녁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땅을 강조한 이유는 땅을 딛고 사는 우리의 삶이 기쁨을 얻는 과정으로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기쁨에 참여하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온 땅이 깨지고

뒤틀리고 흔들리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기쁨을 얻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정을 분리해야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생겨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원죄적 체질 때문에 삶의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소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바라고 맙니다. 이 체질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하고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세상을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죽었다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생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나에게 어떤 기쁨과 만족거리도 제공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삶은 기쁨 없이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을 얻는 과정은 삶과 별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원죄적 체질을 십자가에서 죽인다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누리시는 것처럼 아버지로 인한 기쁨에 참여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안착한 나의 마음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에베소서 2장 6절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득 들어오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또한 아버지 안에 가득 들어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기쁨의 과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쁨을 갖는 과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의 번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늘로 기쁜 상태가 아니라면 절대로 사업장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아이도 키워서는 안 되고, 부부간에 대화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삶, 즉 땅은 하늘 기쁨을 표현하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늘 기쁨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세상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하루에 열두 번, 아니 일천 번씩이라도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을 끌고 올라가시면 하늘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인한 기쁨이 생기면 배우자는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이 되고 자녀는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배우자가 짜증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커피는 블랜딩 할 때에 향이 좋아지지만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면 부부관계에서는 악취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업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따로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얻은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 사업과 기쁨의 과정이 블랜딩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악취만 나게 됩니다.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원수가 생겨납니다.
목사님들 경우에는 목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가 괴롭고 힘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를 기쁨과 만족을 얻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 기쁨은 목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얻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창세전부터 하늘에 있었고 창세후에도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의 정의는 곧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 관계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바로 에덴에서 추방된 삶의 상태입니다.

앞서 신부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 이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목회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니 목회가 안 됩니다. 교인이 많이 오는 것으로써 기뻐하려고 하니 교인은 더 오지 않게 됩니다. 적은 교인 앞에서도 하늘 기쁨은 표현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목회 현장에서 악취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섭고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심판의 내용은 바로 삶과 기쁨의 블랜딩입니다. 땅에서 기쁨을 얻으려 했음이 심판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땅에서 기쁨을 얻으려 했기에 그 원인인 땅을 뒤집어엎으시고 소멸하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땅에서의 삶의 과정을 기쁨과 만족을 얻는 과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생활화되어야만 합니다. 원죄의 체질과 싸우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생활화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내 속에서 활성화되는 원죄의 체질을 억누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어진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만들어진 하늘에서 샘솟는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사업도 하지 않고 자녀도 키우지 않고 부부간의 대화도 금하고 밥을 먹는 것보다도 하늘의 기쁨을 얻는 것을 중시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기쁘면 밥은 식어도 맛있습니다. 국이 맛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늘로 인한 기쁨이 없으면 고작 국으로 인해서도 배우자에게 신경질을 내게 됩니다. 고작 국에서 기쁨을 찾으려하니 악취가 나게 됩니다.
삶의 과정과 기쁨의 과정은 결코 블랜딩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블랜딩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죄적 체질을 십자가 생활화로 억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늘 기쁨을 확보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늘 기쁨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머리 털끝만큼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손대는 일마다 기쁨의 향기를 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